

# 갤럭시로 보는 세상

##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등이 후끈해질 만큼 열띤 탐색 끝에  
책장 안쪽에 숨어 있던 책을 찾았다.

한동안 계절마다 읽었던 여행 에세이다. 장기 출장을 앞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책의 몇몇 문장들을 소개했고 관심을 보인 그에게 책을 선물하기로 했다. 표지가 누렇게 색이 바랜 데다 커피 얼룩까지 있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사서 읽으라고 했을 텐데. 소포를 포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속지들을 훑어 넘겨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소리 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바삭하게 마른 은행잎이었다. 날씨는 고사하고 어느 해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에서 주워 온 건 확실했다. 노랗게 익은 잎을 앞뒤로 살펴 조심스레 수첩에 끼웠던 장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으니 말이다.

사진에도 이와 비슷한 힘이 있다. 작은 화면 속 단편적인 기록이 마치 시간 여행처럼 우리를 그 시절, 장소로 끌어다 놓는 경험이다. 때때로 프레임 바깥 풍경은 물론 날씨와 기분까지 고스란히 재현되기도 한다. 올가을엔 낙엽 채기는 맘으로 스마트폰 속 사진첩을 채워 보자.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시간 지나 바스러질 걱정도 없다.



# 보는 것 너머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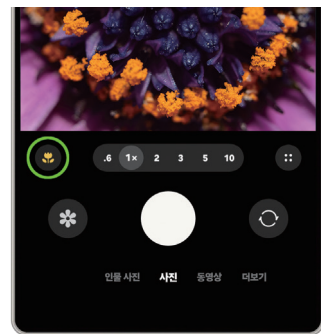
## 스마트폰 카메라의 접사 촬영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대 목표이자 라이벌은 사람의 눈이다. 사용자가 본 장면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 카메라의 화질과 색감이 꾸준히 개선돼 왔다. 당대의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가 가세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장면을 구현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활동 영역을 비약적으로 넓힌 사례도 있다. 눈이 닿지 못하는 영역까지 생생하게 그려 내는 접사(매크로) 기능이 그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사를 촬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일부 스마트폰은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접사 모드가 활성화된다. 두 번째 방법은 카메라 앱의 [더 보기] 메뉴에서 [접사]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촬영 화면에 노란색 아이콘이 표시된 것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사 모드를 실행하면 촬영 거리가 3-5cm까지 짧아진다. 이는 일반 촬영(10-30cm)은 물론 눈을 바짝 대고 보는 것보다도 뛰어난 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접사만큼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드물다. 화면 속에 펼쳐진 작은 세상을 감상하느라 촬영 버튼 누르는 것을 잊을 정도다. 잘 익은 단풍잎에다가 가가면 이파리의 질감부터 가는 잎맥 하나하나가 보인다. 꽃은 그보다 더욱 다채롭다. 코스모스의 꽃술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모양인 것을 알 수 있다. 오묘한 색의 그레데이션도 거리에 따라 달라 보인다. 잠자리 대가리가 확대된 사진을 본 아이들은 무섭다며 소리를 질렀다.

Tip



↑ 접사 모드가 실행되면 화면에 아이콘이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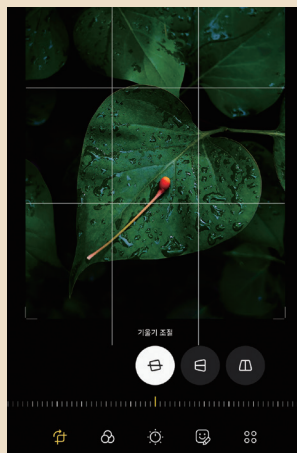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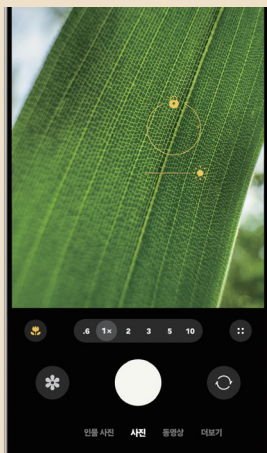






↑ 접사 모드를 설정하면 렌즈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다.

### Tip



촬영 방법은 일반 촬영과 동일하다. 사진의 노출과 초점은 가장 가까운 피사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근접 촬영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화면이 흐려지거나 밝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조작이 필요하다. 촬영 화면을 터치해 초점을 맞추고 손가락을 끌어 올리거나 내려서 밝기를 조절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초점 영역 변경이 지원되지 않는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접사 모드 of 가장 큰 단점으로 일반 촬영 대비 떨어지는 화질을 꼽는다. 원인은 사용하는 카메라에 있다. 접사 모드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그중 가장 넓은 화각의 초광각 카메라를 접사 촬영에 사용한다. 문제는 초광각 카메라의 성능이 광각 카메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특히 빛이 부족한 실내/야간에서 노이즈가 급증하고 선명도 저하, 색 왜곡 등의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접사 모드를 해제하는 것이다. 화면에 표시된 노란색 아이콘을 터치하면 즉시 일반 촬영으로 전환된다. 사용하는 카메라가 광각으로 바뀌면서 촬영 거리도 멀어지지만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1억 화소 이상의 고화소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스마트폰은 이미지를 확대하면 근접 촬영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갤러리의 이미지 편집 메뉴에서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자.

- (좌) 접사 촬영 중에도 초점, 밝기 조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우) 자르기 기능으로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





↑ 낙엽 촬영에는 로우 앵글을 활용해 보자.

머리 위로 단풍, 발아래는 낙엽이 가득한 가을 나들이에서는 로우 앵글 촬영을 시도해 보자. 카메라의 눈높이를 피사체보다 낮춰 올려다보듯 촬영하는 방식이다. 가지에 달린 나뭇잎을 촬영하면 하늘에서 쏟아진 빛 덕분에 잎맥은 섬세하게 보이고 색도 한결 진해진다. 태양을 잎 뒤에 배치해 극적인 연출을 꾀할 수도 있다. 낙엽이 쌓인 수목원, 산책로에서는 스마트폰을 거꾸로 들고 바닥 가까이 두면 된다. 카메라 앞에 있는 낙엽들은 크고 선명하게, 배경은 흐릿하게 표현된다. 다람쥐의 시선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을에 특히 인기가 있다. 게다가 이 구도는 인물 촬영에도 유용하다. 낙엽과 단풍, 가을 하늘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근감으로 인해 긴 다리와 작은 얼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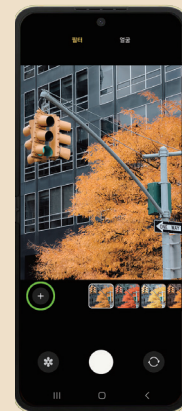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

## Tip



↑ 필터 효과 아이콘



↑ 필터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마이 필터 기능

마지막으로 적절한 필터 효과까지 더하면 낭만적인 가을 사진이 완성된다. 촬영 화면 우측 상단의 필터 아이콘을 터치하면 적용 가능한 필터들이 표시된다. 추천하는 필터는 색이 강조되는 '비비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따스한', '핑크로즈' 등이다. 목록 왼쪽의 더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추가 필터를 설치하거나 제작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접사 촬영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마주치는 모든 피사체가 주인공이 되고 있고 나아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는 데 진짜 매력이 있다. 오늘부터 작은 물방울에 비친 주변 풍경, 설 새 없이 돌아가는 시계태엽 속 규칙들을 감상해 보면 어떨까? 사진의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